

# 金敎臣 <聖書朝鮮>에 나타난 일제시대 교육문화상과 신앙교육의 중요성 고찰

소은희\*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II. 본론
  - 1 <聖書朝鮮>의 主筆 金敎臣
  - 2 <聖書朝鮮>의 창간
  - 3 일제 강점기 <聖書朝鮮>에 나타난 교육문화상과 신앙교육의 중요성
- III.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일제는 1910년 조선을 병합한 후,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경제적인 착취대상과 대륙침탈의 기점으로 간주하고 총독부를 내세운 직접통치의 형식을 취하여 일제의 영위한 從屬國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크게 1911년, 1922년, 1938년, 1943년 네 차례에 걸쳐 제정·공포된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것은 일제가 각 시기별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식민지 교육정책을 펴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식민지 교육정책의 특징을 시기별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식민지정책은 우리 민족에 대한 우민화정책과 일본어 보급, 그리고 친일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제는 제 1차 조선교육령(1911-1922), 제2차 조선교육령(1922-1938), 제3차 조선교육령(1938-1943), 제4차 조선교육령(1943-1945)년 총 네 차례의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조선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 (1911~1922)	제2차 조선교육령기 (1922~1938)	제3차 조선교육령기 (1938~1943)	제4차 조선교육령기 (1943~1945)
韓日合併條約(1910) 3.1運動(1919)	滿洲事變(1931) 中日戰爭(1937)	太平洋戰爭(1941)	日帝敗亡(1945)
우민화 교육	문화교육	황민화 교육	전시체제의 교육

<표1> 조선교육령 개정과 국제 정세 변화

\* 淑明女大中文科敎授

처음 일제가 조선인을 식민지화시키기 위해 가장 힘을 쏟았던 분야는 교육 정책이었다. 그리하여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제정 • 공포하여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교육제도를 정비하여 그것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결국 조선인 학생을 식민 통치에 순응하도록 만들고, 식민지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천황에게 충성하는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데 교육의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보통학교 교육기간은 4년간으로 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설치하지 않았다. 이렇듯 “일제는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일본의 학제에 비해 열등한 학제를 마련하여 조선인에게 가급적으로 저급한 교육을 실시하려 하였다.”<sup>2)</sup>

본 논문은 일제 식민지 시대 조선을 성서의 진리 위에 세워 독립국으로 나아가자는 결의가 적힌 김교신이 주편하고, 송두용, 정상훈, 함석헌, 유석동, 양인성이 발행한 <聖書朝鮮>중 김교신의 자료를 중심으로 일제 시대 교육문화상과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聖書朝鮮>의 主筆 金敎臣

<聖書朝鮮>의 主筆 金敎臣은 1901년 4월 18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한학(漢學)을 공부하다 함흥 보통학교를 거쳐 1919년 함흥공립농업학교를 졸업했다. 같은 해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東京) 세이소쿠영어 학교(正則英語學校)에 입학했다. 1920년 4월, 동경 우시고메區에서 성결교회의 노방설교를 듣고 유교를 떠나 기독교에 입신할 것을 결심하고 야라이미쥬 Holiness 성결교회에 들어가 입신 후 예수의 산상수훈에 접해 기독교 도덕이 유교 이상으로 高嚴함에 매혹되어 6월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11월 교회의 온건한 시미즈 목사가 반대파의 술책으로 축출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깊은 충격에 빠져 반년 동안 교회 출석을 끊고 거취에 고민하다가 당시 무교회주의 기독교의 창시자였던 우찌무라 간조의 문하에 들어가 7년간 성서강연에 참석하여 성서를 배웠다.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의 가르침 아래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 조국을 구하는 길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1922년 도쿄고등사범학교(東京高等師範學敎)에 입학했으며, 1927년 졸업과 더불어 4월 귀국하여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양정고등보통학교, 경기중학교, 송도고등보통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1927년 7월, 우찌무라 문하의 동지 함석헌, 송두용, 정상훈, 유석동, 양인성과 함께 조국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고 월간지 <聖書朝鮮>을 동인지로 발간하고, <聖書朝鮮>의 간행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하지만 1942년 3월호(제158호)에 실린 권두언 <弔蛙>가 조선의 민족혼을 찬양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聖書朝鮮>은 폐간 되고, 신앙 동지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성서조선 사건’이다.

김교신의 양정고보 제자인 윤석중은 1974년 출판된 그의 ‘나라사랑’ 17호에서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엔 <聖書朝鮮>이 불온서적으로 몰려 창간호에서부터 일본 경찰이 전국에서 모조리 거두어들이고 김교신 선생과 그 동지 함석헌, 송두용, 류달영 등 열두 분을 잡아다 가두기도 하였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2)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일제시대의 학교교육』, P15, 한국교육개발원.

출옥 후에는 흥남의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에서 5천 여 조선인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진력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어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불과 녀 달 앞두고 1945년 4월 25일 마흔 다섯의 나이로 타계했다.

金敎臣의 일기인 <日步>에 의하면, 김교신은 “주필 겸 발행자 겸 사무원 겸 배달부 겸 수금인 겸 교정 계 겸 기자 겸 일요강사 등등. 그밖에 박물관사 겸 지리교사 겸 영어, 수학교사(열등 학생에게) 겸 가정교사(기숙 학생에게) 겸 농구부장 겸 농구협회 간사 겸 박물관회 회원 겸 박물관연구회 회원 겸 지리, 역사학회 회원 겸 외국어학회 회원 겸 직원 운동선수 겸 호주 겸 학부형 등”의 1인 21역을 감당하였다.(1936.1)

김교신이 담당한 업무는 ‘종류’만 많았던 것이 아니다. 잡지를 시내 서점에 배달할 때마다 ‘이것도 잡지라고’, ‘팔리지 않는 잡지...’ 등등의 빈정거리는 말을 들었고, 때로는 “물론 조선 사람들이요, ‘예수’ 또는 ‘기독교’이란 것을 간판에 내 낀 서점”에서 모욕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제자였던 김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달 한 번씩 이러한 경멸을 당하기를 즐거워함으로 감사하고”, “가장 효과 있는 신앙의 부흥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을 때에 오는 것”이라며 예수와 더불어 핍박을 받음을 즐거워하며 감사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늘 무교회주의자라는 이유 때문인지 이단자 취급을 받았다.<sup>3)</sup>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말씀하신다. 건물로 지어진 유형의 교회만이 교회인 줄 아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너희가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았을 것이다. 또한 1930년대 후반부터는 총독부의 검열에 저촉되어 잡지 발간이 기약 없이 지체되거나, 폐간 직전의 위기에 내몰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교신은 15년을 한결같이 <聖書朝鮮>간행에 심혈을 기울였다. “신앙은 정도의 고하(高下)도 아니요, 열불열(熱不熱)도 아니요, 오직 계속하는 일이 귀하다”고 한 자신의 신념대로(1934. 7. 1), 일제에 의해 폐간 조치될 때까지 일관해서 <聖書朝鮮>을 간행했다. 김교신은 타인의 무시와 방해 속에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던 것이다.

## 2. <聖書朝鮮>의 창간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아래서 갖은 핍박과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조선의 애국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조선독립의 길을 모색해 나아갔다. 독립 운동가들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으로, 김구 선생은 무력투쟁 전략을, 이승만은 외교 전략을, 조만식 선생은 산업 전략을, 안창호 선생은 국민교육 전략을 각기 제시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또한 1927년 일본 동경에서 유학 중인 조선의 20대의 젊은이들이었던 김교신, 송두용, 정상훈, 함석헌, 유석동, 양인성은 조선을 성서의 진리 위에 세워 독립국으로 나아가자는 ‘성서조선 운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3) 김교신은 <성서조선>제92호(1936.9)에 무교회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10년에 걸쳐 우치무라에게 배운 것은 무교회주의가 아니요, ‘성경’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설령 우치무라 선생의 내심에는 무교회주의란 것을 건설하며 고취하려는 심산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것은 무교회주의가 아니요, 성서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무교회주의에 대한 왈가왈부 변론을 당할 때는 우리는 대개 有口無言하니, 이는 우리가 전공한 부문이 아닌데 저편에서는 훨씬 열정적으로 功究(힘써 연구함)한 문제인 듯이 보이는 까닭입니다.” 또한 김교신 선생은 <성서조선>제100호(1937.5)에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에 대하여 “교회 만능을 주창하는 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단언하는 자, 즉 ‘교회주의자’에 대하여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프로테스트protest한 것, 구원은 교회 소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정정한 것이 루터의 프로테스탄트주의요, 또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무교회주의입니다.”라고 하였다.

1927년 1월 일본 동경 변두리 스기나미 지역의 한 하숙방에 모여 조국을 성서 위에 세우자는 결의를 하고 ‘조선성서 연구회’를 결성하였다. 매주 토요일에 함께 모여 성서를 연구하며 성서의 진리 위에서 어떻게 조선독립을 쟁취할 것인지 기도하고 토론하고 연구하였다. 이들의 가슴에는 성서를 사랑하는 마음과 조선을 사랑하는 두 마음이 합쳐져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서 조선독립의 길을 찾고자 하였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얻은 부활의 생명으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한 인류의 죽은 영을 살리고 혼을 깨우치며 성경의 진리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조선독립의 성취를 비전으로 품었던 것이다. 모임이 거듭될수록 비전이 높아지고 뜻이 굳세어져 그해 7월부터는 월간 성서연구지를 출간하게 되었다. 그러나 월간<聖書朝鮮>의 정기구독자는 300명을 넘지 못했고, 조선성서연구회 모임은 당시 교회 측의 냉대로 YMCA 강당 사용을 거부당할 정도로 이단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聖書朝鮮>은 조선총독부의 철저한 검열과 재정의 궁핍 가운데서도,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약 15년 동안 158호까지 간행되었다. 1942년 3월호(제158호)에 실린 권두언 <弔蛙>가 조선의 민족혼을 찬양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된<聖書朝鮮>은 다행히도 첫 호부터 1942년 3월호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聖書朝鮮全集』으로 남아 있다.

### 3. 일제 강점기 <聖書朝鮮>에 나타난 교육문화상과 신앙교육의 중요성

일제강점기라 하여도 교육열이 남다른 조선인들은 지금의 초등교육기관에 속하는 보통학교 수준까지의 교육에 만족하지 않았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였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보통학교에 비하여 훨씬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했다. 그러나 지원자 대비 입학자의 비율로 보면 중등학교는 특히 일반계 중등학교의 취학 기회는 초등학교에 비하여 극히 제한되었다. 일제는 초등학교에 관련해서는 조선인의 교육열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정책을 폈으나, 중등교육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 식민지 시기 내내 중등교육에 관한 한 철저한 정책을 견지하였다.<sup>4)</sup> 중등학교의 설립은 ‘간이’의 정책으로 가능한 억제하였으며,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인문계 학교의 설립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주로 실업학교를 설립하였다. 중등교육기관은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이전까지 조선인을 위한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와 일본인을 위한 중학교, 고등여학교의 이원체제를 유지하였다. 그 이외에 실업학교로서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수산학교 등이 있었으며, 1922년에는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고등교육 기관의 주축을 이룬 것은 전문학교이며, 1926년부터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어 법학부와 의학부가 설치되었다.

이렇듯 일제는 우리민족에 대한 우민화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실제주의, 근로주의의 교육에 치중하였고, 조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나갔다. 일제의 이러한 교육정책의 의도는 한국 민족이 독립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므로, 식민 지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교육을 시켜 일찍이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sup>5)</sup>

일제의 식민지배 초기인 1910년대에 조선인들은 일제가 설립한 보통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기피하고 서당을 선호하였다. 그래서 식민 지배당국은 관에 의한 생도 모집을 선전하거나 학교 선생님의 출장 방문으로 입학유도를 하는 등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보통학교 학생을 모집하였다.<sup>6)</sup>

4)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일제시대의 학교교육』, P21, 한국교육개발원

5)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일제시대의 학교교육』, P355-356, 한국교육개발원

조선인의 보통학교 취학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이후의 일이다.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의 학생 수는 1919년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15년에 15만명, 1922년 20만명, 1923년에는 3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보통학교 학생 수는 1932년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33년부터 다시 급증하였다. 1942년의 보통학교 학생 수는 1,799,661명으로 1911년에 비해 약 55배 증가하였다.<sup>7)</sup>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발흥한 ‘항학열’이 보통학교 취학욕구를 고조시켜 1930년대에는 보통학교 입학난이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당시에 조선인들이 겪었던 보통학교 입학난에 대해 1936년 3월29일 동아일보는 “그러나 명춘 이 때 다시 우리의 가슴에 박두할 주기적 입학 기근은 다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조선과 같이 입학난이 심한 곳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도 없을 것이다”, “세금을 내고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곳은 우리 조선뿐이다”라고 하였다.<sup>8)</sup>

이렇게 앞을 다투어 학교에 입학하려는 보통학교와 중등학교의 극심한 입학난의 어려움은 김교신이 쓴 몇 편의 <聖書朝鮮>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第 66 號 (1934年 7月) -단독-

新學年이 돌아올때마다 約八百名의 天真한 兒童이 百名의座席을 競爭하는 光景을 目睹한다. 京鄕을 勿論하고 兒童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형님이나 누님이, 一人에 一人씩은 따라왔것만 受驗票를 가슴에 품은 學童의 갈곳과 保護의 所任을 맡은 父兄이 設곳은 스스로 境界가 다르다. 兒童은 二重三重의 點呼와 檢閱을 畢한後에 뛰는 가슴을 진정하면서 人生에서 처음 당하는 選拔試驗에 及第하라고 激甚한 競爭이 시작되었는데, 校庭에 모인 父兄들은 長時間 佇立한대로 멀리 冠岳山을 바라볼뿐이다. 짐작건대 저들 保護者中에는 腕力으로 될 일이라면 百千의 丈夫를 두려워안할 勇士도 있을터이오, 金力으로 될 일이라면 千金도 오히려 많다 안할 長者도 없지않으려마는, 그래도 試驗만은 幼弱한 學童의 스스로의 힘으로 싸와 七人을 勝한者되여야만 저의 運命의 第一關을 通過한다. 아버지의 힘찬 팔뚝과, 누님의 뜨거운 가슴도 受驗場에 앉은 者에게는 틸끝만한 助力도 加할수없다. 室內에서 力鬪하는 受驗生과 室外에서 念慮를 止 못하는 父兄을 對照하여 해야될때에, 監試하는 敎師의 가슴에 흐르는 感淚의 洪流도 크지않고 건딜수없다.(중략)

그러나 사람이란 사람마다 一生에 몇번씩은 이러한 難關, 單獨으로 싸워야만하는 難關을 通過하고야 살도록 人生의 프로그램을 作定하신이의 聖意에 想及할때에, 우리의 無能과 焦慮를 悔恨하기보다 人生의 高貴성과 嚴肅함과, 하나님의 至極하신 사랑의 寶座앞에, 枕邊을 지키면서, 우리는 속살거렸다. “싸워라, 악아 홀로 싸워라, 너는 다시없는 人生인 까닭이다. 主여 당신은 크도소이다. 眞情이로소이다. 어리고 弱한者도 各其 單獨으로만 싸우게하셨어오니, 당신은 받으소서 感謝와 讚頌을”하고.

主 그리스도가 四十日四十夜를 曠野에서 試驗받았을때에 單獨이었고, 그十字架가 또한 單獨이었다. 單獨은 願하고싶은것이 아니나 人生에 單獨은 不可避한 것인듯하며, 또한 人生에 가장 高貴한 것은 單獨으로 當하는 일에서만 얻을수있는듯하다. 우리가 病患으로 因하여 親族에게 바림을 當하고, 貧困으로 因하여 故友를 잃고, 不利한 事業을 企圖하여 協力者의 離散을 當한때에, 그자리가 아니고는 받을수없는 眞理의 잔이 넘침을 본다. 그리하여 나중 審判의 자리에도 通譯없이 辯護士없이, 오직 仲保者인 예수와 함께 單獨으로 서리라.)

이 문장을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100명 모집에 800명이 지원하며, 당시 입학난이 얼마나 심각했

6)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일제시대의 학교교육』, P73, 한국교육개발원  
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일제시대의 학교교육』, P33, 한국교육개발원  
8)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일제시대의 학교교육』, P74, P109, 한국교육개발원

는지를 알 수 있다. 김교신 선생은 이러한 입학난을 통해 어린이라 할지라도 홀로 이 일을 감당해야하며, 그 누구도 도와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설명하며, 그 홀로 일 때 “그 자리가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진리의 잔이 넘침”을 말하고 있다. 실로 그리스도인은 진정 세상에서 홀로임을 느낄 때 믿음으로 이기고, 나와 동행하는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고 말씀하신다.

다음은 성서조선 第 87號 (1936年 4月) 의 입학시험 광경에 대해 소개한다.

### 第 87號 (1936年 4月) -입학시험 광경-

單百名募集에應募者 實로一千四百六人. 이것도 三月十四日午後四時正刻까지에 手續遲刻한者를 假借함이 없이 싸움싸움拒否하고서 이數字이다. 우리는 이應試者를十五六班에分隊整列하고 高級擴聲器를使用하여 受驗一般에關한注意를일러주고 臨時天幕教室까지增設하였어도 오히려机床不足, 先生不足. 故로 馬糞紙板으로 된代用机床과 臨時監視先生雇用等等 開校以來の大騒動이었다.

이윽고 生徒들은 各其教室에吸收되고 蓬萊町一帶에市를 일우었든學父兄들은 運動場內에 들어설수있게되었다. 室內에서受驗하는 어린이들中에는 緊張한餘地에番號姓名을失記하는者도 있으며 或은小便을 앉은자리에서 싼者도 보이거니와, 窓外에서徘徊하며停立한대로 한時間두時間을待하는學父兄中에는 白髮이盈盛한祖父, 角帽를 숙여쓴兄叔, 高普女學生制服의 누님들, 젓먹는 아기를 업고있는 어머니들, 別수없는줄이야 彼此 모르는마아니것마는 그래도教室쪽만 바라보고있다. 이안의 모양과 저밖의光景을對照해보면서 敎壇에섰는敎師의 가슴으로는 막을수없는感淚의潛流가 흐르고 흐른다.

무슨 까닭에 이群衆이 이야단들인고. 저들이願하는대로 十四對一의比例로優勝者의榮譽를獲得하고 入學된다하더라도 別달리神通한일이 없을뿐인가, 結局은期待에反하였다는失望의材料밖에 成果가없다는痛嘆을發함은 哲人賢者를待할것도없이 五個年後에卒業하고 나갈때마다 저들이 異口同調로 부르짖는 ‘演說’이다. 五個年後에定한不平과 今日의 非常한 저熱望! 受驗者와保護者들의愛情과熱誠이 아름다우지 아님이아니다 (以下一行略)

예수 대답하야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가 나를찾는 것은 이적을 본까닭이아니오 떡을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위하여 일하지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지어다”라고(요한六章二六-七)異蹟의떡먹은後의數千群衆을向하야發하신 예수의 말씀을記憶하면서, 屢氣樓를 잡으라는 千四百餘名의天真한 어린이들과 그들의父兄母姊들과 또한 그들과差不多한敎師自身을想及하니, 憐憫의情 憎惡의憤 懺悔의淚가胸中에交錯하지 않을수없도다. 永生의糧食보다 썩을糧食을爲하여, 참된 여호와나님보다 눈에보이는偶像을爲하여 더욱熱誠을 다하는것이人間이라 할지라도, 敎會堂마다空席이 많은데 學校마다定員超過에困疲하니 果然이것이 옳은現象인가. 그러나마나 學校에入學하는일이 곧 사람되는길이라면 얼마나安心되랴.

위에 소개한 <聖書朝鮮> 第 87號에서는 100명 모집에 응시자 1,406명이 몰려와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몰려든 조선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인의 학교 취학 욕구가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1920년대 후반부터는 보통학교 입학 지원자가 항상 모집 인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입학 경쟁은 만성적이었다. 그래서 보통학교 입학 단계에서 시험을 치르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sup>9)</sup> 그리하여 김교신은 “우리 백성으로서는 보통학교 입학시험에 ‘급제’하여

9)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일제시대의 학교교육』, P74, P109, 한국교육개발원

도 크게 장한 줄로 아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었다.”(<聖書朝鮮>1933.4)고 설명하고 있다.

위 문장은 14대 1의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임시 천막까지 설치하며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 마치 밖에서 입학시험을 치르는 자식을 기다리는 가족의 모습은 오늘날의 수능 날 모습을 방불케 한다. 이와 같은 보통학교 입학난이 초래된 것은 재정 부담의 증대를 이유로 일제가 조선인의 교육 욕구를 수용할 만큼 교육의 기회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보통교육을 종결 교육화하고 그 교육기회를 최대한 억제하려 했던 일제는 조선인의 보통학교 증설 요구에 대응하여 몇 차례 보통학교 증설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지만, 그 증설 규모는 조선인의 교육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sup>10)</sup>

“보통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나는 비율만큼 중등학교의 정원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1930년대 들어 중등학교 입학난은 심화되었다.”<sup>11)</sup>

아울러 <聖書朝鮮> 第 87 號 (1936年 4月)에서 김교신은 “영생의 양식보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참된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위하여 더욱 열성을 다 하는 것이 인간이라 할지라도, 교회당마다 빈자리가 많은데 학교마다 정원 초과로 피곤하니 과연 이것이 옳은 현상인가”라고 하고 있으며, “그러나 마나 학교에 입학하는 일이 곧 사람 되는 길이라면 얼마나 안심되랴”고 말하고 있다. 학교마다 정원 초과이나 교회당 마다 빈자리인 당시의 사회문화상을 두고 학교에 입학하는 길이 사람 되는 길이라면 얼마나 안심되겠냐고 한탄하고 있다. 지금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이며, 참 그리스도인도 그리운 시대이다.

김교신 선생은 중등학교의 극심한 입학난에 대해서도 <聖書朝鮮> 第 52 號 (1933年 5月)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第 52 號 (1933年 5月) -교육과 종교-

慶祝할일인지 안인지는 맞히모르나 每年新學年度를當하면 朝鮮에教育熱이旺盛한事實을看過할수없다. 그熱誠의結果로니 年年歲歲에 入學難을부르짖게되니 그一例를들면 養正高等普通學校에서今年度募集定員一百二十名에對하여 七百五十餘名の應募者가殺到하는形便이다. 他도類推할수있다. 그럼으로教育이라고만하면 ‘入學難’이라는 것은 나나없이 첫째로聯想하는文句다. 科學라는弊風에 骨髓까지물들린 우리百姓으로서는 普通學校入學試驗에 及第하여도 크게 장한줄로않은事勢當然한일로되었다. 어제든 教育이라면于先’入學難’이오. 둘째로알기는 教育이라면 돈드는일인줄은 半島江山에 모르는이가없다. 今年度에 京城市內中等學校新入學生이 入學式當初에要하는金額은 大略六七十圓으로부터百圓內外오 專門大學으로程度가높으면 金額도높으려니와 初等學校라도 그 半額은不下하는터이다. 學資란것은 當當히父兄께要求할權利있는줄로아는것이 今日學童의心理오 이에 應하여 父兄된者도 子侄의學費와先朝의墓地代만은 아낄수없는것인줄알아먹었다. 故로幼稚園부터大學院까지 한사람教育을完成하라면 萬圓金도많다할수없다. 셋째로 教育이라면長時日걸려야 되는 法人줄안다. 幼稚園의數個年은除하고라도 普通學校만하여도六個年이다. 況大學까지에는 順調올라가도 通算十六七年은要하여야 現下朝鮮에있는制度의教育을한번맞후는심이된다. 넷째로 教育이라면非常한努力을要할것인줄안다. 故로‘螢雪之功’이라하며 怠慢한者가淘汰當할것은元亨利貞으로안다.

그런데 宗教에關하여는 어떠한가. 그리스도는 “生命에이르는門은좁고길은협하다”하셨지만 누가信仰에들어가려다가’入學難’을當하였으며 主는”있는것을 다팔아 갚진진주를사라”고하셨지만 오히려朝鮮基督敎는 돈버리하는한方便이안이었는가. 加之에所謂傳道者들은 基督信者되기는數日內로도可하다하며 그런 牧師

10)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일제시대의 학교교육』, P79, P109, 한국교육개발원

11)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일제시대의 학교교육』, P79, P109, 한국교육개발원

되기에는數年間神學校에往來하면되는것인줄로 基督教의금사를定하여버렸으니 大體웬일일까. 우리所見으로 教育은宗教에이르는途程이니 宗教에未及한教育은未成品이오失敗다. 또한 宗教는教育的으로修練할것이니 奇蹟的으로一朝一夕에 ‘速成’한다기보다 寶物을받히고時日을걸려서漸進的으로 ‘晚成’할것이다. 쉽게말하면 通常爲人이 基督信者됨에는 적어도十年은工夫하여야할것이다. 깊이알라면야五十平生도不足하리니와.

윗글은 심한 ‘입학난’과 더불어 교육은 ‘돈 드는 일’ 이라고 반도 강산에 모르는 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양정고등보통학교에서 금년도 모집정원은 120명인데 75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형편이며”, “ 다른 학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중등학교 입학난이 얼마나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부모 된 사람들은 “자녀의 학비와 선조의 묘지 비용만큼은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당시 조선인의 교육열도 보다 많은 사회적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욕구에 의해서 촉발되는 지금의 교육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김교신 선생은 “그리스도는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길은 험하다’하셨건만 누가 신앙에 들어오려다 ‘입학난’을 당하였는가? 예수님은 ‘있는 것을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라’ 하셨건만 오히려 조선의 기독교는 돈벌이를 하는 한 방편이 아니었던가? 여기에 더하여 이른바 전도자들은 ‘기독교 신자가 되기는 며칠이면 가능하며, 목사가 되려면 몇 년간 신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정해 뒀으니 대체 웬일인가?”라며 당시의 기독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이 곤궁하다 하나 전도자금이 없어 일할 수 없을 것 같지는 않다. 실은 산 복음이 없는 것이요, 평신도들이 가난하여서가 아니라 저들이 참 복음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1932년 12월)” 라고 하였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삶이 곤궁한 것은, 참 복음의 즐거움, 즉 사람들이 예수님과 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해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모르기 때문이다.

김교신은 또한 교육은 종교에 이르는 한 과정이며, 종교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은 미완성이며 실패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교신이 강조한 교육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17:3)”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처럼 일반적인 지식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며, 종교에 이르게 하는 도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마도 먼저는 믿음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평안을 얻은 뒤 모든 일을 주와 함께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고 말씀하신다.

다음은 극심한 입학대란을 야기한 학교교육을 마친 후, 인격의 양성으로 보나 취직의 효용으로 보나 당시의 학교교육이 그다지 신통한 것이 아님을 지적한<聖書朝鮮> 第 64號(1934年 5月)를 소개하고자 한다.

#### 第 64 號 (1934年 5月) -最大한 偶像-

學校教育에依하여 善人을 養成할수없음은 온世上이周知하는事實이다. 지금은 ‘教師들의 가르키는敎訓은 遵守하라 그러나 저들의行動은 본받지말라’(太二三章三節)고 아니하는學父兄이없다. 또數年前까지는 一種投資의心事로써 卒業後의就職을期待하고 學校로 보내는수도 있었으나, 그것이收支가 맞지못하는投資인 것은 昨今の就職難으로써 判明되었다. 卽人格養成으로보나 就職條件으로보나 現代의學校教育이란것은 그다



지 神通한것이안임이 明確하다.

그럼에도不拘하고 學校教育은 現代人에게 最大한偶像이다. 不信者뿐만 아니라 篤信者에게도一般이다. 人間萬事가 分에應해야 하여야할것은勿論이다. ‘이불길을 보아가면서 발길을 꺾라’함은 東西洋에 共通한格言이다. 마는 子侄의教育에限하여서만 이불이 잘라도 발길만 꺾고저한다. 넷날 우리祖上들의, 世界에比類없는 祖先崇拜의熱誠은 이제 ‘子孫崇拜’의形態로變하였다. 先祖의墳墓를爲해야 아끼는것이없든心情으로써, 最後의一坪田土까지 팔아서라도 學用品 後援會費를合하여 普通學校에五拾餘圓 中等學校에百餘圓 專門大學에數百圓씩 四月一日에獻納하기를 더듬지않는다. 여기에 教育을爲한破産이 생긴다.

簡易生活은 사람마다願하는바이나 年復年增加하는 教育費를支辨하기爲하여는 收入의增額을企圖하여야한다. 急速度로膨脹하는支出에比하여 收入이相伴치못할때에 人間悲劇이始作된다. 本意에거스리는職務도 甘受하여야하러니와 昇官運動도辭讓치않으며, 不正行爲도 手段을 가리지않고 目的에達하라는때에 생기는것이다. 教育을爲한 非教育의生活이 이에서胚胎한다.

몸을 다하여 公職에 服務함을 ‘忠’이라稱할것이나, 子弟의教育을爲하여 都會로轉任할때에 그背任하는模樣이 마치娼妓의節을變함과 彷彿할지라도, 學校教育을爲함이라하면 自他가 서로容認하러한다. “惡魔는都會를建設하고 하나님은 鄉村을建設한다”하며, 農村振興이 時急하다고 웨치는先覺者가 있으나, 農民을募集하여다가 서울서農民修養會를開催하여야하는形便이니 教育의悲哀가없지못하다. 平日에嚴正公明하든人士도 子侄의入學試驗에는 破廉恥하고 請託을試하니, 其父에其子라 入學後에는 不正行爲를하더라도 進級하기를企圖한다. 한번 問題가 學校教育에及하면 老幼와賢愚의別이없이 混頓이오忘悖이다. 이렇게하고라도 學校教育의結果에 何等所得이있다면 容或無怪하러니와, 今日의學校教育을 받으면받을수록 그生活水準이 높아지는外에 무엇이남는가. 絶對한信賴의標의이되면서 何等의實效도없는것을 曰‘偶像’이라한다. 現代와같이 教育이偶像化한때에 “行有餘力則爲學問”이라는 孔夫子의말씀에 깊이反省할것이다.

조선인들이 이처럼 절실하게 학교에 취학하기를 원했던 이유와 당시의 조선인이 가졌던 교육열은 일제의 학력 주의적 지배 관행에서 연유된 바가 크다. 관리가 되거나 근대 부문인 은행, 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제가 인정하는 졸업장이 있어야 하고, 학교장의 추천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학력 수준에 따라서 임금이 위계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학력취득의 욕구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이다. 일제의 식민 지배 체제가 굳어져 가면서 학교교육을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또 그 수단적 가치를 중시하는 풍토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학력주의적 사회 관행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됨에 따라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해 학교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력주의적 가치관과 행위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 넓고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이 모습은 대학 특례 입학, 부정 입학 등 지금의 교육 현실과도 닮아 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도 고등 교육열의 심화로 인해 입학 부정부패 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부패가 얼마나 오래된 잔재물인지 짐작하게 한다.

학교 교육을 입신출세의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풍조가 자리 잡기 시작한 일제 강점기<聖書朝鮮>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획득을 도모하기 위한 조선인들의 교육열에 대해 자세히 엿볼 수 있다.

다음은 <聖書朝鮮> 第 51 號 (1933年 4月) 에 실린 취직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近日어떤이는 京都帝大를卒業하고歐米留學까지맞후고왔는데 就職못되는自己신세를痛嘆하여 맞나는 사람마다 學業의無益을唱導한다하니 이는學問과就職의關係를 맞히女學生의工夫가結婚式까지의準備건으로 되는줄로아는바와一軌의心情이다. 最高學府까지맞후었을지라도 就職이못되면 高양이落胎한것보다도 더慘狀을일우어 그초초한形狀은참아못보게되고 就職한다면人間萬事가既成한줄알아 學業은다시돌보지않고 浮虛

12)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일제시대의 학교교육』, pp109-117 참조, 한국교육개발원

그物件이되고마니 차라리昔日의漢學徒들이 境遇의如何를가리지않고 學問그물건을亨樂할줄알았음은 오늘날 大學出身者들보다 勝함이幾十倍이었던가.

김교신은 위의 글에서 수년 전까지는 일종의 투자하는 마음으로 졸업 후의 취직을 기대하고 학교를 보냈으나, 결국 당시의 학교 교육은 인격의 양성으로 보나 취직의 효용으로 보나 그다지 신통치 아니한데, 그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당시의 심각한 취직난에 대해 “최고학부까지 마쳤다 할지라도 취직을 못하면 고양이 낙태한 것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이 며”, “반대로 취직을 하면 인간만사가 모두 이루어진 줄로 알아서 학업은 다시 돌보지 않고 마음만 들떠서 허황된 물건이 되고 만다.”라고까지 하였다.

### Ⅲ. 나오는 말

본고는 지금까지 김교신의 <聖書朝鮮>에 나타난 1920년대, 1930년대의 입학난과 취직난 등에 나타난 일제시대 교육문화상과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제는 1910년 조선을 병합한 후, 조선인을 식민지화시키기 위해 가장 힘을 쏟았던 분야는 교육 정책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우민화정책과 일본어 보급, 친일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들은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구실로 조선인에게 가급적으로 저급한 교육을 실시하려 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배 초기인 1910년대에 조선인들은 일제가 설립한 보통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기피하고 서당을 선호하였다. 그래서 식민 지배당국은 관에 의한 생도 모집을 선전하거나 학교 선생님의 출장 방문으로 입학유도를 하는 등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보통학교 학생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발흥한 ‘항학열’로 보통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욕구가 고조되자 1920년대 이후부터는 앞을 다투어 보통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극심한 입학난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게 되었다. 김교신 선생의 <聖書朝鮮>에는 이러한 1920년대, 1930년대 조선인들의 입학난과 취직난 등의 교육문화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 속에서 <聖書朝鮮>를 통해 김교신 선생은 인격의 양성으로 보나 취직의 효용으로 보나 신통치 못한 당시의 입학난과 취직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딤후3:16-17) 함과 같이 ‘교육이야말로 신앙에 이르는 한 과정이며,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은 미완성이며 실패’라고 까지 하였다. 그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는 말세와 같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영생의 양식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참된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위하여 더욱 열성을 다 하는 것이 인간이라 할지라도, 교회당마다 빈자리가 많은데 학교마다 정원 초과로 피곤하니 과연 이것이 옳은 현상인가. 그러나마나 학교에 입학하는 일이 곧 사람 되는 길이라면 얼마나 안심되랴.”라고까지 하였던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의 말씀처럼 <聖書朝鮮>에서 김교신 선생은 조선의 독립은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그의 義를 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요 끝이라 여기며 그는 <創刊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만우리念頭의全幅을차지하는것은朝鮮二字이고 愛人の게보낼最珍의선물은聖書一卷뿐이니 兩者의一을捨치못하여 된것이 其名이었다. 祈願은 이를通하여熱愛의純情을傳하러하고 至誠의선물을彼女の게들기어려함 이로라.

“聖書朝鮮”아너는爲先이스라라집집으로가라. 所謂既成信者의手에거치지말나 基督보다外人을禮拜하고 聖書보다會堂을重視하는者의집에는그말의문지를털지어다.

“聖書朝鮮”아너는所謂基督信者보다도朝鮮魂을所持한朝鮮사람의게가라. 시고을노가라 山村으로가라. 거기의樵夫一人을慰함으로汝의使命을삼으라.

“聖書朝鮮”아네가萬一그처럼忍耐力을가졌거든汝의創刊日字以後에出生하는朝鮮人을待하야面談하라相論하라同志를一世紀後에期한들何를嘆할손가.

김교신 선생이 쓴 <聖書朝鮮> <創刊辭>는 실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의 말씀처럼 일제강점기 조국의 살길은 다른 여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영생의 복에 달려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교육이야말로 신앙에 이르는 한 과정이며,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은 미완성이며 실패’라고까지 한 것이다.

<聖書朝鮮>에 나타난 입학난, 취직난은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요즘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시대가 변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입학난, 취직난 등의 모습은 김교신 선생이 말한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의 현실일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참 신앙이야말로 참 교육이란 것을,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전도서 2:24).”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본체(빌2:6)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며 천국으로의 초대장을 보내셨다.

## 《參考文獻》

### 1. 원전류 및 공구서

東亞日報, 1936.3.29.

朝鮮總督府令, 『官報』, 號外 (1907.12.18)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警務月報』 제11호,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1911.

韓國人の 結社·集會에 관한 헌병대의 告示 第6項.

### 2. 단행본 및 논문

김교신, 송두용, 유삼안, 유인성, 정상훈, 함석현, <聖書朝鮮>, 1927, 도쿄성서조선사.

김교신, 『김교신』, KIATS 엮음, 2008, 홍성사

김정환, 『김교신 그 삶과 믿음과 소망』, 한국신학연구소, 1994.

내무부 학무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 教授上ノ注意並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 (朝鮮譯文), 1910.

곽동철, 「일제치하의 도서관업과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모리슨, 『韓中聖經』, 도서출판 모리슨, 2003.

박의수·강승규·정영수·강선보 저,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동문사, 2002.

소은희·김미은,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自習完壁支那語集成』과 『无先生速修 中國語自通』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중국문화연구학회, 『中國文化研究』, 第12輯, 2008.

소은희·심영숙, <日本殖民地時期 중국어회화교재 《改正增補漢語獨學》(1911)에 나타난 일본의 대조선 교육정책 고찰>, 중국문화연구학회, 『中國文化研究』, 第14輯, 2009.

소은희·이주연, <개화기에서 1910년대까지의 중국어 교육상황 고찰>, 『중국문화연구 18輯』, pp262-263, 2011.6

소은희, <1920년대 중국어교육에 관한 연구 - 東亞日報, 朝鮮日報, 中央日報 기사를 중심으로 ->, 중국문화연구학회, 『中國文化研究』, 第16輯, 2010.

이성열, 「大韓帝國 末期 日本人 學務官僚의 教育干涉과 韓國人の 教育救國運動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1.

鄭在哲, 『日帝의 對韓國植民地教育政策史』, 서울: 一志社, 1985.

정재걸·이혜영,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Ⅰ)-개화기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4.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Ⅰ) - 일제시대 학교교육-』, 1997.

韓基彦·李啓鶴, 『日帝의 教科書政策에 關한 研究』,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함종규, 『한국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2003.

### 3. 인터넷 자료

<http://www.biblekorea.net/siteinfo.html>

<Abstract>

Study on the importance of faith education and the state of educational culture in Gyo-Shin Kim's 『Bible Chosun』 during Japanese occupation

So,Eun Hee

After Japan's annexation of Korea in 1910, education policy was the most concentrated part to colonize Koreans. Education policy of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ism can be summarized into Obscurantism, Japanese Language Distribution Movement and Pro-Japanese Education. Japan tried to carry out low-level education to Korean, making excuse of executing education plan based on right time and right standards of people.

This paper discusses the difficulties of getting admissions to schools and finding jobs during the 1920s and 30s an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faith and the state of educational culture in Gyo-shin Kim's 『Bible Chosun』 which was written during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Gyo-Shin claimed 'Education is the process to fulfill faith. The policy that cannot reach it, is incomplete and failure', quoting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servant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Timothy 3:16-17)'

**KEY WORDS:** Japanese occupation, Gyo-Shin Kim's 『Bible Chosun』, educational culture, the importance of faith education.